11일은 입양의 날

가슴으로 낳은 사랑 "우리집은 행복한 집"

작년 국내입양, 해외입양 첫 추월

광주에서도 119명 사랑의 만남

"특별한 게 없어요. 가슴으로 낳든, 배로 낳든 방법이 다를 뿐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거는 똑같으니까요."

결혼 14년차인 박진석(41·나주시)·조현주(37)씨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지난 2004년 큰딸 지민(5)이를, 지난해에는 둘째 딸 지수(1)를 입양했다.

조씨는 "힘들게 입양을 결정했었지만 오히려 자식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며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유재근(40·전북 고창군)·박남숙(35)씨 부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친아들 2명이 있지만 2006년과 올해 민주(5·여)와 민유(1·여)를 공개 입양했다.

박씨는 "결혼 전부터 입양을 계획했었던터라 자연스럽게 입양을 하게 됐다"며 "키우다 보면 친 자식처럼 혼내기도 하는 등 내가 낳지 않았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처럼 친자가 있어도 아이를 원해 입양하는 경우는 전체 국내 입양 가족의 30%에 이른다.

오는 11일은 제3회 입양의 날. 입양의 아름다운 의미와 기쁨을 다함께 나누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최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200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입양(1천388명·52.3%)이 사상 처음 해외입양(1천264명·47.7%)을 앞섰다.

하지만 전체 입양아동 수는 2004년 3천899명, 2005년 3천562명, 2006년 3천231명, 2007년 2천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국내입양은 119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제도와 경제적 지원을 마련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입양가족 숲속 캠프'에서 입양가족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사무소 제공〉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개념을 도입, 지난 1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양 부모에게 2주일간의 휴가를 주는 '입양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입양부모의 자격 기준을 '양자가 될 자와 연령 차를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했고 독신자 가정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양 부모의 자녀 수를 5명 이내로 제한한 규정도 조만간 없앨 계획이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해서 매달 10만 원을 지급해온 '입양아동 양육 수당제'를 향후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사무소 서경숙 소장은 "입양에 대한 관심은 늘었지만 아직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엄청난 사랑이 필요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아이와 부모가 적응시간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입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사무소,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입양기관은 입양의 날을 맞아 9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본점 3층 강당에서 '제3회 입양의 날' 기념식과 함께 '한사랑 가족축제'를 개최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칼럼

도암

함께 살아가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습 또한 다양하다. 각각의 존재들은 자기만의 존재 이유를 갖는다. 보호본능을 동반한 채로 말이다. 자기만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자신을 가치의 정점에 올려 놓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보다 나은 것을 더 많이 갖으려 한다. 하지만 욕망이 요구하는 양에 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욕망을 따른다. 경쟁을 하게 되고, 우열이 나타난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학습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본능이라 한다. 식욕, 수면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이 대표적이다. 그 중심 에너지는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에너지는 자신에 대한 보호본능이다. 그것이 극대화되면 배타적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친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자타카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인간이란 진실로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책략에 능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정략적 수단에 능하다. 인간은 확실히 남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야비한 마음을 가졌고 간계에 능한 동물이다."

경쟁의 세계엔 세 부류의 존재관계가 있다. 강자, 약자, 그리고 동등한 자들이다. 강자가 약자 모두를 제거할 수도 없고, 약자가 죽어줄 수도 없다. 괭괭한 대립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조화로운 공존관계로 살아갈 것인가는 상대를 대하는 자비와 지혜의 양에 달려있다.

강자가 자기보다 못한 이를 포용할 능력이 있다면, 진정 대단한 자다. 약자가 강자를 존경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대단하다. 비슷한 이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협력·보완할 수 있다면, 서로의 관계가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서로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가능하다.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이며, 어리석음의 양을 줄이고 지혜의 양을 늘이며, 이기심의 양을 줄이고 이타심의 양을 늘이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송광사 율원〉

'가정의 달' 사랑 만들어요

종교계, 건강한 가족 만들기 등 행사 풍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종교계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은 17일 오전 10시 '자녀 성공 열쇠-자존감 키우기'를 주제로 부모·자녀 특강을 연다. 수강료는 어른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또 오는 31일 오후 2시 평생교육원에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돕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하나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부부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비 3만원. 문의 062-380-2210.

글라리넷 수도회는 오는 11일과 25일 남평 글라리넷 영성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1일 가족피정'을 연다.

문의 061-331-1213.

광주 월광교회(김유수 목사)는 11일 오후 7시30분 함현진 마술사를 초청, 주일 예배를 마친 뒤 '가스펠 마술'을 연다.

또 18일에는 가족 찬양 경연대회를 연다. 25~27일에는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비결을 배우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도 개최한다. 문의 062-375-0400. /이은미기자 emlee@

절망에 빠진 미얀마 이재민 돕습니다

조계종·천주교 등 종교계 모금운동

종교계가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절망에 빠진 미얀마의 이재민 돕기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은 8일 미얀마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종단 소속 전국 본·말사에서 다음달 30일까지 모금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12일) 법요식을 통해 신도들에게 구호성금 모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에 '이재민 돕기 연등 밝히기' 캠페인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알 묘 르원 주한미얀마 대사에게 사이클론 참사 피해복구성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8일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로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 추기경은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미얀마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희생자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대교구는 정 추기경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이사장 김운회 주교)를 통해 긴급 구호자금 3만 달러를 미얀마에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다. 천주교는 또 조만간 개발구호팀을 미얀마에 파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대교구 총 신자 31만9,494명

봉선동 본당 9,067명 최다

2007년 천주교 교세 통계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이하 광주대교구)의 총 신자 수가 31만9천494명(2007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보다 4천973명 증가한 수치다.

최근 광주대교구가 발표한 교세 통계에 따르면 남성 신자 수는 12만5천521명(39%), 여성 신자 수는 19만3천973명(61%)으로 조사됐으며, 연령별로는 40~49세(19.7%) 신자가 가장 많았다.

신자 증가율은 지난해 1.6%에 머물렀으며 1999년(4.3%)을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본당별 신자 수는 봉선동 본당이 9천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암동 본당이 6천953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목 신부 145명, 특수 사목 신부 40명을 포함한 교구소속 성직자 수는 모두 229명이었으며 남자 수도자는 66명, 여자 수도자는 4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미기자 emlee@